

비밀 속제

김다노 동화 | 이윤희 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교과:

- 4학년 국어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 4학년 국어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4학년 도덕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문화를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지닌다.
- 4학년 사회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편견, 차별 등)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분야: 한국 창작동화

권장 차시: 10차시

대상 학년: 중학년 이상

활용: 민주시민 교육

주 제 어: #우정 #나다움 #차별 #평등 #다문화

작성: 공세초등학교 주혜선 선생님(예민한 도서관)



■ 학습 목표

- 나를 알아보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 도서 소개

나다움어린이책 창작 공모 대상작 『비밀 소원』을 쓴 김다노 작가의 두 번째 이야기 『비밀 숙제』가 나왔습니다. 유학을 떠난 5학년 이량은 타국에서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을 알게 됩니다. 바로 ‘동양인’. 김치나 된장보다 맥도날드를 좋아하는 게 뭔가 잘못처럼 느껴지고, 궁금하지 않은 타인의 국적을 나 역시 궁금해 해야 하는 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과연 이량의 고민 너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종차별 앞에서 아주 사소하고, 다소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순간을 보여주는 책, 『비밀 숙제』와 함께해 보세요.

■ 수업 준비

이 책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에서는 인종차별, 난민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책을 읽으며 이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또한 작가가 말하는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활동지에 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스스로 조사한다면 더 풍부한 수업이 될 것입니다.

학습 과정

단계	주요 활동	총 10차시
읽기 전	책과 친해지기 - ‘숙제’ 하면 떠오르는 것 - 차례를 보고 내용 예상하기	1차시
읽는 중	챕터 ① ‘나’에 대해 생각하기 - 내가 알고 있는 나를 표현하기 챕터 ② 차별이 뭐예요? - 이쪽에서 바라보는 차별 - 저쪽에서 바라보는 차별 챕터 ③ 다양성 껴안기 - 난민에 대해 알아보기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익광고 만들기 챕터 ④ 나, 너 그리고 우리 - 내가 생각하는 친한 친구	2~7차시
읽은 후	책 속으로 - 등장인물에게 묻고 답하기 둘레 살피기 - 세계 여러 나라 알아보기 책 밖에서 - 나만의 띠지 만들기	8~10차시

읽기 전

■ 책과 친해지기

1. '숙제' 하면 떠오르는 것

- 숙제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다음 칸을 채워 봅시다.

재미있었던 숙제	힘들었던 숙제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주고 싶은 숙제

2. 차례를 보고 내용 예상하기

- 차례를 보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예상해 볼까요? 열여섯 가지 소제목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 짧은 글짓기를 해 봅시다.

<예시>

[내가 고른 소제목] ① 익숙한 질문 ② 쇼핑몰에서 생긴 일 ③ 투명 인간이 되다

“숙제 다 했니?”

매일 수학 수업이 시작할 때마다 듣는 익숙한 질문이다. 다른 친구들은 “네.”라고 대답했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제 쇼핑몰에서 생긴 일 때문에 숙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 숙제를 검사하실 때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다.

[내가 고른 소제목] ①

②

③

.....

.....

.....

■ **챕터 ① ‘나’에 대해 생각하기**

1. 내가 알고 있는 나를 표현하기

- 나는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랑, 마야, 폴처럼 메모지에 자신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봅시다.

<참고>

- 내가 좋아하는 것

- 내가 싫어하는 것

- 내가 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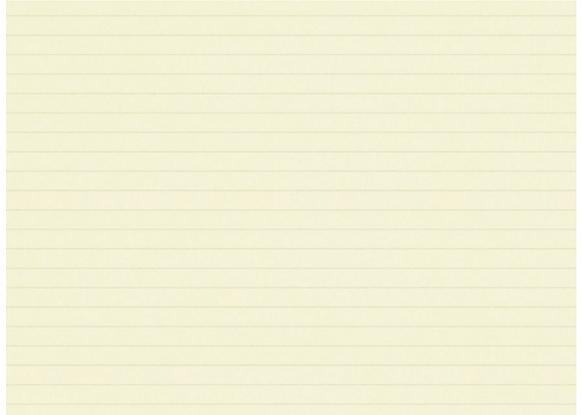
- 내가 못 하는 것

-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

- 내가 평소에 자주 듣는 말

-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 **챕터 ② 차별이 뭐예요?**

1. 이쪽에서 바라보는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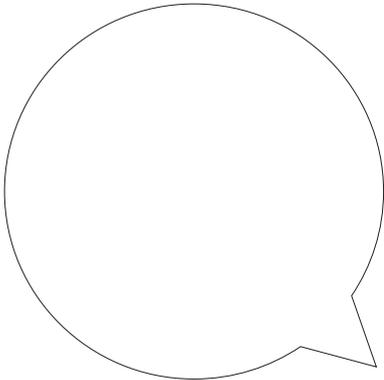
1) 책을 다시 읽고, 이랑이가 학교와 쇼핑몰에서 들은 차별적인 말을 찾아 적어 봅시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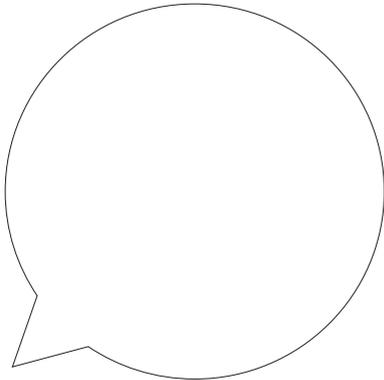
2) 여러분은 한국인(동양인)을 향한 차별적인 말을 듣거나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차별적인 말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

3) 인종차별적인 말을 한 점원에게 사과받기 위해 종이를 들고 매장 앞에서 있는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 봅시다.



우리는 어제 이 쇼핑몰 매장에서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이유는 우리 머리카락이 검은색이고, 검은 머리는 도둑일 거라는 직원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4) 주인공들은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량리와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점원에게 어떤 사과를 받고 싶나요?

.....

.....

.....

.....

2. 저쪽에서 바라보는 차별

1) 한국인들은 차별을 당할까요? 차별을 할까요?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흑형”
친근감을 나타내는 단어처럼 들리지만, 특정 피부색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좋지요?”
상대방의 국가보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한국인 다 됐네요.”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결국은 한국인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2020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 인종차별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민 약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한 결과 68.4%가 한국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차별 사유로 인종(44.7%), 민족(47.7%), 피부색(24.3%)보다 한국어 능력(62.3%), 한국인이 아니라는(59.7%), 그리고 출신 국가(56.8%) 등의 사유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2) 한국인들은 차별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해 봅시다.

.....

.....

.....

.....

3) 여러분은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서약서를 적어 봅시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서약서

아래의 내용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1.

2.

3.

이름: 년 월 일

■ 챗터 ③ 다양성 꺼안기

1. 난민에 대해 알아보기

1) 책 67쪽에 나온 내용을 읽고, 난민에 대해 알아보시다.

“나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어.”

역시나 풀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풀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오래 살지 못했다. 그곳에서 살다가는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죽을지 몰라 떠났다고 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난민 캠프’에 있었다고 에세이에 써서 발표한 적이 있다.

- 난민은 누구일까요?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난민의 종류는 무슨 이유로 어려움을 당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왔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우리나라에 온 난민 중에는 정치 난민이거나 종교 난민이 가장 많습니다. 소수 민족이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서 떠난 난민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 살기 위해 온 난민들도 있습니다. 또 나라 사이의 전쟁이나 나라 안의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난민이 한꺼번에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전쟁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 난민들의 생활은 어떠할까요?

시리아 난민, 알리의 이야기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많은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이는 난민 어린이들에게 대단히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바논에서 난민 10명 중 9명은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어린이는 부족한 식량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을 하거나 학교를 그만둡니다. 데이르에조르 주에서 온 11세 알리는 그의 아버지가 야채와 자기 장난감 자동차를 차에 싣고 가족을 데리고 2016년에 시리아를 떠났을 때를 희미하게 기억합니다.

레바논에 사는 알리는 가족을 돕기 위해 베이루트의 변두리에 있는 자동차 수리소에서 손님들의 차에 페인트칠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장난감은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게에서 일만 해요.” 그는 시리아로 다시 돌아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고 있는 올리브와 사과나무를 보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

난민 캠프



세계 최대 난민 수용국인 요르단의 난민 캠프

난민 캠프는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여 끊임없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중동 일부 국가에서 특히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난민이 가장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요르단,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케냐 등지의 나라에 많은 난민 캠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캠프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공공의료나 교육은 기대할 수 없으며, 비와 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천막 시설이 전부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1주일에 두 번, 소량으로 배급되는 식량으로 힘겹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 난민의 날(매년 월 일)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2000년 유엔총회특별 결의안을 통해 정한 날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 전 세계가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본래 6월 20일은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여 오던 날이었는데,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주었던 아프리카와의 연대를 표현하고, 보다 많은 나라와 세계 시민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이날을 '세계 난민의 날'로 확장하여 기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2) 난민에 대해 알아보며 무엇을 배우고 느꼈나요? 자신의 생각을 아래 칸에 정리해 봅시다.

배운 점	느낀 점	앞으로 실천할 점

※ 같이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 KMB [처음 만난 우크라이나 난민 친구를 와락 안아준 유치원 아이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익광고 만들기

- 많은 사람이 인종차별과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공익광고를 만들어 봅시다.

 <p data-bbox="268 1547 515 1605">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공익광고 (출처: 공익광고협의회)</p>	 <p data-bbox="872 1373 1086 1431">난민 문제를 다룬 공익광고 (출처: 유엔난민기구)</p>
--	---

■ **챕터 ④ 나, 너 그리고 우리**

1. 내가 생각하는 친한 친구

1) 이랑이에게는 친한 친구를 부르는 낱말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 낱말을 찾아 적어 봅시다.

이랑이의 친구들	친구를 부르는 낱말	낱말의 의미
미래와 현욱		
폴과 마야		

2) 이랑이처럼 친한 친구를 부르는 자신만의 낱말을 만들어 봅시다.

친구를 부르는 낱말	낱말의 의미

3) 친구들과 서로 어떤 낱말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아래 칸에 친구들이 만든 낱말을 적고, 함께 빙고 놀이를 해 봅시다.

친구 이름: ()	친구 이름: ()	친구 이름: ()
친구 이름: ()	친구 이름: ()	친구 이름: ()
친구 이름: ()	친구 이름: ()	친구 이름: ()

읽은 후

■ 책 속으로

1. 등장인물에게 묻고 답하기

-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에게 궁금했던 점이 있나요? 친구와 함께 묻고 답하기를 해 봅시다.

〈활동 방법〉

1. 가장 안쪽 칸에는 질문하고 싶은 인물을 적어요.
2. 그다음 칸에는 자신이 궁금했던 점을 적어요.
3. 가장 바깥쪽 칸에는 친구가 그 인물이 되어 답을 적어요.

미래에게
어떤 생일 선물을
줬어?

현욱

■ 들레 살피기

1. 세계 여러 나라 알아보기

1) 이랑이가 태어난 '한국'과 지금 살고 있는 '캐나다', 마야가 태어난 '네팔'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다음 칸을 채워 봅시다.

나라 이름	한국	캐나다	네팔
국기			
위치(대륙)	아시아		아시아
수도		오타와	
면적			1,471만 8천ha
인구		3,838만 8,416명	
인사말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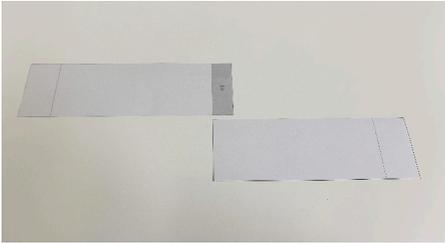
2) 평소 가 보고 싶거나 궁금했던 나라가 있나요? 한 나라를 정해서 책 또는 인터넷을 활용해 조사해 봅시다.

조사한 나라	
이 나라를 선택한 까닭	
조사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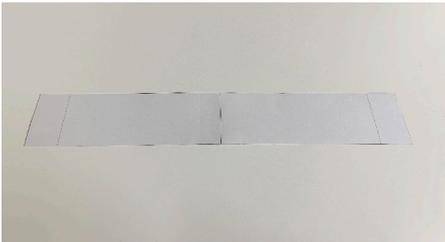
■ 책 밖에서

1. 나만의 띠지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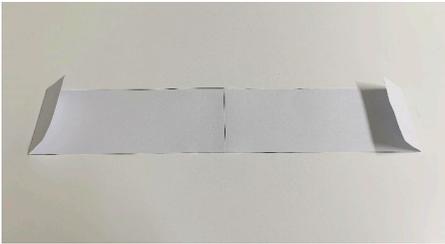
- ‘띠지’는 책 표지 아래쪽을 두르고 있는 가늘고 긴 종이입니다. 띠지는 책을 광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독자에게 책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나만의 「비밀 숙제」 띠지를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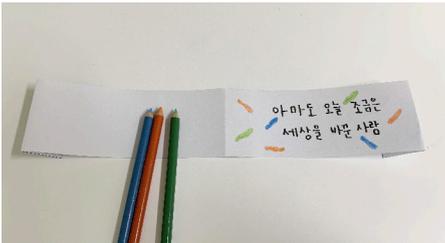
① 가위로 도안 1, 2를 각각 잘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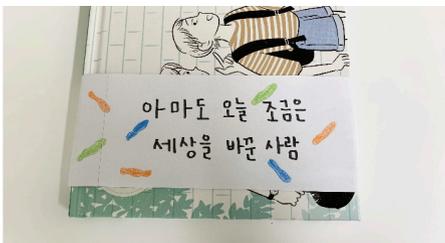
② 두 도안을 풀로 이어 붙여요.



③ 점선에 따라 양옆을 접어요.
(띠지 모양 완성)



④ 띠지를 뒤집어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생각하며 꾸며요.



⑤ 완성된 띠지를 책에 끼워요.

띠지 만들기 도안

